

“진정한 ECM 이 오고 있다”

By Marvin Pyles

Sarbanes-Oxley Act, HIPAA, 새로운 SEC 규칙 및 기타 제정되는 각종 법률 및 명령이 콘텐츠 및 레코드 관리 기술들을 대부분 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감시 목록으로 만들고 있다.



허밍버드(Hummingbird)의 최신 버전 슈트인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 5.1은 ECM(기업용콘텐츠관리) 도전 과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각종 준수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1 버전은 중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니지만, 최종 사용자층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개선된 유용성과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는 문서 관리, 레코드 관리, 지식 관리, 협업, 검색, BI, 데이터 통합, 그리고 포털 통합을 포함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슈트다. 허밍버드는 레코드 관리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는 선발 ECM 기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높은 컴플라이언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허밍버드의 레코드 관리 기술은 DoD 5015.2-서티피드(Certified)이며, 보다 최근에는 익스체인지 공개 폴더와 로터스 노츠 저장소에 송수신 콘텐츠의 분류, 색인, 검색, 보존(Retention)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 이메일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추가시킨다.

허밍버드는 많은 중요한 ECM 기술 통합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허밍버드는 여전히 WCM(Web Content Management) 기능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몇몇 관계자는 허밍버드의 Ad-hoc 문서-승인-중심 워크플로어(Document-Approval-Oriented Workflow)가 강력한 문서 이미징(Document Imaging) 지원 기능을 지닌 제품에는 부적합하다고 경시한다.

버전 5.1의 유용성과 성능 업그레이드는 문서 관리와 레코드 관리 컴포넌트를 위한 아웃오브더박스(Out-Of-The-Box) 리포트 같은 성능이 향상된 BI 툴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특정 저작자가 기고한 문서, 또는 저장된 문서의 유형별로 저장소에 조회하는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다. 아울러 BI Query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종 맞춤형 조회 및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다.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 5.0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공통 용어(Common Terminology)를 제공하는 데 있어 커다란 발전을 이뤘다. 출시용 5.1 버전은 별도의 개선된 유용성을 구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유사한 정보가 입력됐다면, 검증 필드(Validation Fields)는 이제 오토 포플레이트(Auto-Populate)된다. 또한 인터페이스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페데럴 섹션 508 컴플라이언스(Federal Section 508 Compliance)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허밍버드의 검색 기능은 모든 모듈에서 일관된 보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5.1 버전에서 능률화됐다. 확장 캐싱(Enhanced Caching)은 보다 신속한 결과를 보장하며, 검색 기능은 보다 사용 친화적이어서 자연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5.1 버전에서의 협업 기능 향상은 보다 손쉽게 스레드(Thread) 토론을 향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스레드가 읽혀지지 않았는지를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비주얼 큐(Visual Cue)를 추가시켰다. 스레드는 계층구조나 일시별로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관련 토픽을 토론하기 위한 어떠한 레벨에서든 새로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중요 사항을 담은 리마인더(Reminder)를 활용해서 읽음, 또는 읽지 않음으로 토픽들을 표시할 수 있다. 토론 스레드는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 색인돼 관련 콘텐츠와 함께 출력될 수 있다.

허밍버드 최대의 고객층은 법률, 전문 서비스, 정부 기관, 금융 서비스, 그리고 공공 시설을 포함한다. 고 매사추세츠 웰리스리에 소

‘허밍버드의 out-of-the-box 기능은 과도한 컨설팅, 맞춤형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NUCLEUS GROUP, SHRUTI YADAV

재한 뉴클레스 리서치(Nucleus Research)의 셸티 야다브(Shruti Yadav) 연구원은 “허밍버드는 과도한 컨설팅 내지 맞춤형 비용 없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Out-of-Box(설치 후 바로 사용)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허밍버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기업들이 구현 시간을 더욱 짧게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ROI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오랜 고객인 스티크먼 엘리엇(Stikeman-Elliott)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PCDocs로 알려진 허밍버드의 코어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토론토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인 스티크먼 엘리엇은 이후부터는 수 차례의 소프트웨어 반복(Iteration)을 통해 업그레이드시켜, 5.0에서 5.1로의 업데이트 작업을 완결시켰다.

M&A(Mergers & Acquisitions)를 전문으로 하는 스티크먼 엘리엇은 웹 기반 인터페이스 하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전세계 9개 사무소 사이의 통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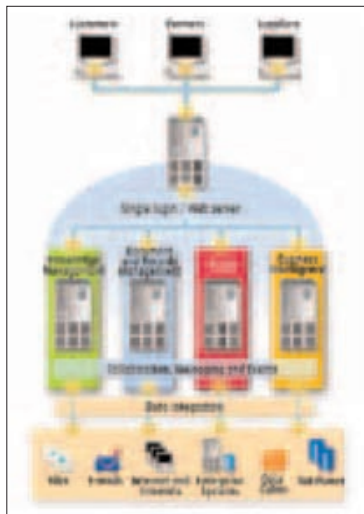
이 회사 벤키 시린바산(Venky Srinivasan) 기술부장은 “토론토의 법률가들은 이제 뉴욕 사무소의 법률가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문서를 뉴욕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크먼 엘리엇은 허밍버드 포털을 사용해서 문서, 특히 판례-템플릿의 계약서(Precedents-Templated Agreements), 또는 이전에 완결된 거래 관련 견본 문서를 세계 도처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스텔라(Stella)” 포털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맞춤형된 사용자 즐겨 찾기(User Preferences) 창을 통해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이 포털을 통해 안전한 접속까지 보장한다.

이 때문에 스티크먼 엘리엇 포털의 인기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최고 80%의 사용자가 이용했기 때문이다. 시린바산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콘텐츠는 최소한 40개 서버에 분산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콘텐츠 계층(Content Hierarchy)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했다”는 게 그의 부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5.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켜, 5.1이 지니고 있는 개선된 검색 및 캐싱 기능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단순히 키워드만을 입력해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시린바산은 말했다.

시린바산은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허밍버드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모듈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우리는 법률가들이 온라인 채팅을 해서, 이메일 전송과 전화 통화 횟수를 줄일 수 있기를 원한다”며 “5.1 버전의 진수와 함께 우리는 협업



허밍버드의 ECM 슈트는 다양한 콘텐츠의 관리, 협업, 보존 기능을 통합시킨다.

기능들을 시범 활용하기 위한 법률가 그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WCM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허밍버드는 아직 이의 대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최근 허밍버드는 뉴욕의 WCM 벤더인 레드닷솔루션즈(Red Dot Solutions, www.reddot.com)와 제휴를 맺었다.

이번 제휴를 통해 각각의 제품들을 통합할 때, 허밍버드의 관리 문서들은 이제 레드닷 콘텐츠 매니지먼트 서버에 링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 시트와 링크된 레드닷 관리 웹 페이지는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 문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ECM 플랫폼에 WCM을

구축하는 것과 완전히 똑 같은 방식은 아니다.

WCM 기능이 다음 버전에서 선을 보이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허밍은 워크플로우와 J2EE(Java 2 Enterprise Edition) 지원 부문에서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허밍버드의 래리 로이(Larry Roy) 제품 관리 부장은 허밍버드가 2004년 초에 엔터프라이즈 워크플로우(Enterprise Workflow) 모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계획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로이는 “허밍버드는 지난 6월에 J2EE-호환 레코드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기술을 보유한 영국 기업인 발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스(Valid Information Systems)를 인수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바 기반 플랫폼을 지원하는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 출시 계획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CMP Media LLC)

시놉시스

벤더: 허밍버드(Hummingbird, 캐나다 토론토 소재)

www.hummingbird.com

제품명: 허밍버드 엔터프라이즈 5.1

제품개요: 문서 관리, 레코드 관리, 지식 관리, 협업, 검색, BI, 데이터 통합, 포털을 포함하는 웹-기반 통합 애플리케이션 슈트.

장점: 다른 ECM 시스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종합적인 통합 및 BI 기능.

이질적인 저장소에서의 통합 검색(Federated Searching)을 지원 하는 검색(Search and Retrieval) 기술. 포괄적인 out-of-the-box 기능.

단점: 웹 콘텐츠 관리기능 부족. Ad-hoc 워크플로는 문서 승인에 가장 적합하다. 최근에는 J2EE 환경에 대한 지원 기능이 부족하다.

가격: 컴포넌트는 슈트나 스탠드얼론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시트 카운트, 구입 모듈, 그리고 요구 기능에 따라 다르다.